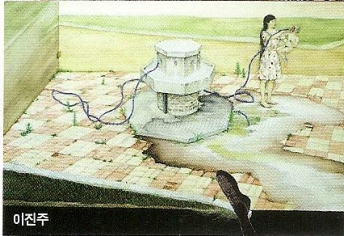


WHO I am

4M ART & ARTIST 2점은 종이나 비단 위에 먹, 채색 물감 등으로 그리는 작가들인 고영미, 김정향, 이진주의 전시를 선보인다. 이들의 작품은 재료 면에서 동양화로 구분하는 것뿐, 감정의 변화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주제나 소재는 볼 수 없다. 현실을 아름다운 전쟁에 비유하는 고영미,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환상의 공간을 그려내는 김정향, 일상의 시간 속에서 겪은 감정들을 바탕으로 상상을 시작하는 이진주. 이들을 통해 동시대 작가가 가진 세상의 눈을 살펴보자, 8월 9일까지 청담동 아이엘아트(02-3446-3766)에서 열린다. K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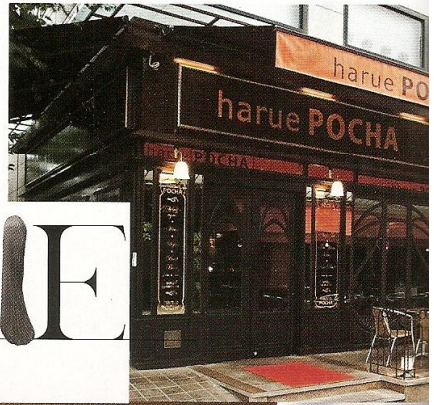
이진주

김정향



MISS ASIA

한국을 오느냐 마느냐로 이슈가 된 존 갈리아노가, 그에 앞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를 오마주한 새로운 향수를 비행기에 먼저 태워 보냈다. 미스 디올 최초의 아시아 버전인 '미스 디올 세리 블루밍 부케'는 무수 디올에서 존 갈리아노까지 디올의 아시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폭폭 담긴 향수 향은 이렇다. 어디로 될지 모르는 신비로운 동양 여자들 같기도 하고(통 노트의 시트러스 성분), 단아하고 참한 전형적인 여자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며(미들 노트의 작약), 동양의 로맨틱한 감수성이 풍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베이스의 화이트 마스크), 자, 프림스식 코로 해석된 '미스 동양'의 향기가 어떻게 궁금하지 않겠나. KYS



INVOGUE

voque korea 12th anniversary



A MUST PITSTOP

1995년 오픈한 하루에는 서울의 카페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진한 커피와 발레 서비스를 소개했고, 카페들의 필수 메뉴가 된 외출 역시 하루에겐 원조다. 청담동 문화의 하루에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 하루에가 'harue pocha'로 새로 태어났다. 오픈 13년이 되면서 리뷰얼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수업 대표가 인연의 변신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소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소주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루에 포차'를 생각해 봤습니다. '귀의 일대로 이곳에서 평범한 '포장다점'을 떠올려서 안 된다. '어떤 손님은 Pocha를 포차가 아닌 '포샤'로 읽더군요. 하하.' 붉은 인테리어와 고급 인상적인 건 태국식 인주를, "소주와 매콤하고 느끼하지 않은 태국 음식이 절묘하게 어울리더군요." 그가 원하는 하루에 포차의 모습은 가격도 분위기도 부담스럽지 않은 곳, 그리고 소주 문화가 트렌디하게 변한 시작점이다. "청담동과 소주의 믹스 그 발상이 재미있지 않나요?" KYS

